

“책임 경영으로 그룹 정상화해 지역민에 보답하겠다”

금호아시아나그룹 제2창업 나선 박삼구 회장

인터뷰 = 박치경 수석논설위원

그룹 주축 기업인 금호산업 인수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 막바지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은 결연한 표정이었다. 인수 과정에서 우여곡절을 겪었던 금호산업을 되가져오면 6년여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 그룹 재건의 발판을 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13일 광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박 회장은 “여러 사람에게 송구하고 미안하다”며 말문을 열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재기를 관심 있게 지켜보았던 광주·전남 지역 주민은 물론이고, 그룹을 도와준 모든 이들에게 미안하다는 인사말로 박 회장은 인터뷰를 시작했다.

하지만 인터뷰 내내 그룹을 다시 살려 제2창업을 이루겠다는 확고한 신념을 드러냈다. 책임 경영으로 그룹을 정상화해 도움 받은 사람들에게 꼭 보답하겠다는 약속을 몇 차례나 강조했다. 또 경영관과 인생철학을 소개하고, 금호아시아나그룹의 미래 방향도 제시했다.

- 그룹 재건이 진행 중이다. 소회가 남다를 것 같다.

▲ 그동안 심려를 끼쳐 드려 송구하고 미안하다. 특히 금호아시아나에 대한 애정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그 분들께 죄송한 마음이다. 워크아웃 기간 동안 고생해 온 3만 명이 넘는 임직원들에게도 미안하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대우건설 풋백 옵션 등으로 그룹이 어려워지고 그간 힘든 시기를 거쳤다.

- 금호산업 인수계약을 마친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은.

▲ 물론 인수를 잘 마무리하는 것이다. 지난 9월 24일 채권단과 7228억 원에 계약을 체결했고, 연말까지 대금을 납입할 예정이다. (인수자금과 관련)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SI(전략적 투자자)와 FI(재무적 투자자) 등 도와주신다고 하는 분들도 많이 있다. 준비는 다 잘 되고 있으며 막바지 협의를 하고 있다.

- 인수 가격을 7228억 원으로 조정된 것은 그간의 대외 활동이 작음했다고 본다.

▲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왔다. 여러 분들께 많은 빚을 졌다. 어려운 환경에서 수많은 분들이 도와주었다. 모든 분들의 믿음과 신뢰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다.

- 워크아웃 기간 중 가장 힘들었던 시기는.

▲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리먼사태 등과 2009년 동생과의 문제가 생기고, 2010년 1월 워크아웃에 돌입하게 됐다. 당시 금호석유화학 쪽은 크게 문제가 없었고 채권단과 합의하여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가 워크아웃을 개시했다.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자율협약에 들어갔다. 무엇보다 이 시기에 형제간의 분쟁이 가장 어려웠다. 분쟁이 발생할 것이라고 상상도 하지 못했다. 광주·전남 지역민들의 기대가 크셨을 텐데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해 마음 아프고 안타까웠다. 동생과 좋은 관계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 금호아시아나 그룹 재건 일지

2010.1	워크아웃 돌입
2010.10	박삼구 회장. 경영 일선 복귀
2011.7	대한통운, CJ그룹에 매각
2014.10	금호산업 조건부 워크아웃 졸업
2014.12	금호타이어, 아시아나항공 채권단 자율협약 졸업
2015.9	금호산업 인수 계약 체결
2015.12.30	금호산업 인수대금 납입 완료(예정)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겠다.

- 그룹 재건의 동기가 원동력을 꼽는다면.

▲ 동기라기보다는 저의 책임감이다. 회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그룹을 살려야 하겠다는 책임감이 그것이다. 지금까지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채권단과 금융시장에서 금호아시아나와 저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하며 또한 고맙게 생각한다.

- 대우건설 인수가 그룹 유통성 위기의 가장 큰 원인으로 보는데.

▲ 2006년 대우건설을 먼저 인수했고 2008년 대한통운을 인수했다. 근본적인 원인은 2008년 세계 금융위기가 발생한 것이다. 두 번째로 동생과의 분쟁이 없었다면 이렇게까지 어려워지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한다. 동생과 분쟁 없이 함께 힘을 합쳤더라면 위기를 더욱 수월하게 극복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금호타이어의 경우에는 자체 경쟁력이 떨어졌었기 때문에 힘든 시기를 맞게 되었다.

- 금호고속과 금호타이어를 재인수해야 완전한 그룹 재건이라고 보는데.

금호산업 인수 도와준다는 분 많아 잘 되고 있어

금호고속 일시적 매각, 빠른 시일내 되가져올 것

장학사업 등 사회공헌 확대 호남 발전 앞장서겠다

▲ 금호고속의 경우 일시적으로 PEF(사모펀드)에 매각한 것이다. 경영은 계속 하고 있고 다시 가져오는 계약(콜옵션)도 맺었다. 가능한 이른 시일 내에 고속을 가져와야 한다는 생각이다. 금호타이어는 2017년까지는 인수 관련 업무를 마무리 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 금호아시아나 그룹의 미래상은.

▲ 금호고속과 아시아나항공은 운수업으로 우리 그룹의 주력이며, 타이어 산업(금호타이어)과 건설업(금호산업) 등 크게 3개 분야가 주축이다. 그 외 레저, IDT, 항공 관련 지원 산업 등이 있으며 더 전문화하고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갈 것이다.

건설업종에서 대우건설 인수 전에 금호건설은 규모가 작았으며, 대우건설 인수후 부동의 1위를 만들고자 노력했지만 타이밍이 좋지 않았다. 대한통운

인수도 우리의 주력인 운송업 분야를 확장하고자 했던 것이다. 대우건설, 대한통운을 인수하면서 호남기업도 우리나라 10대 그룹에 한번 들어가 보자는 생각이 있었다. 열심히 노력해서 재계 7위까지 올라갔지만 세계금융위기가 찾아 왔다. 금호산업 인수 마무리를 통해 금호아시아나의 체력을 길러 더욱 강하게 만들 것이다.

- 공적 또는 사적으로 대인 관계의 원칙이 있다면.

▲ 먼저 선친인 박인천 창업회장을 두 가지로 말씀드리면 첫째로 굉장히 책임감이 강하신 분이시다. 둘째로 정직함을 매우 강조하신 분이시다. 더불어 산업화가 뒤진 호남 지역의 공장 유치에 전력을 다 하셨다.

1984년 금호타이어 제2공장의 부지를 선택해야 할 때였다. 타이어 산업 원자재 수입 및 완성품 수

출을 위해서는 항구나 자동차 공장, 아니면 소비자가 많은 서울로 가야 하는 게 맞지만 호남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곡성을 선택했다. 곡성은 여러 가지로 열악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창업회장님께서 평소 호남 지역 공장 설립에 노력하셨는데 우리 형제들이 다른 곳으로 공장 부지를 선택해서야 되겠느냐는 생각에서 곡성으로 정한 것이다. 그룹 회장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그동안 받은 사랑을 되돌려 드리는 것이 나의 책임이다. 그 책임을 다하려면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죽지 않고 사는 것, 살아남는 것이 보답하는 길이다.

- 그룹 재건 후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 확대 계획은.

▲ 전국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호남 지역 발전이 중요하다. 호남지역은 많이 낙후돼 있다. 어떻게 하면 발전할 수 있는가에 대해 다 같이 고민해야 한다. 고속버스터미널은 광주의 얼굴이라는 생각에 유스퀘어를 건립했다. 유스퀘어 문화관도 지어 문화예술 저변확대를 위해 노력했다.

또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이 축호학원을 통한 장학 사업이다. 창업회장님께서 어려운 시기에도 끊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장학사업, 인재 육성을 위해 노력해 오셨다. 그 뜻을 이어받아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것이다. 관광·레저 산업 분야도 소홀히 하지 않을 작정이다. 현재 한국방문위원회 위원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는데 정부 요청에 대해서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할 것이다. 관광 산업은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매우 큰 산업이다.

- 기업 경영관과 후배 임직원들에게 해 주고 싶은 말은.

▲ 일반적으로 기업의 목적은 이윤의 추구이다. 내가 생각하는 기업의 목적은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이해 관계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종업원, 주주, 거래처 관계자 협력회사 등 관련 있는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이윤이 나와야 한다. 기업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 수단은 이윤이며 이는 필수조건이다.

- ‘아름다운 기업’이 모토인데 이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은.

▲ 1946년 박인천 회장의 창업 이래 2006년 그룹이 60주년을 맞았을 때 ‘아름다운 기업’을 선포했다. 아시아나항공에서 ‘아름다운 사람들’ 캠페인을 시작했는데 정의는 각자 자기 분야에서 자기 역할을 다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름다운 기업이란 지탄 받지 않는 기업이다. 지탄받지 않고 사회에서 인정 받는 기업을 만들어 나가겠다.

-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 광주·전남이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고민하고 이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있다. 지역에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잘 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기업가와 재산가는 다르다. 기업가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다. 기업가와 재산가 중 하나만 고려하면 기업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unipark@kwangju.co.kr /사진=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산수옥면가
41년 모밀장인 이재성 대가
광주·전남 가맹점 대모집

▶ 최고의 마진
▶ 최소의 창업비용
▶ 최소의 인건비

“산수옥면가”입니다!!

산수옥면가에서 제공하는 옥수와 소스는 41년 노하우를 통해 한국인의 입맛에 가장 알맞게 개발된 제품으로서 전문 주방장 없이 초보자도 쉽게 조리할 수 있습니다.

점심시간 줄서서 먹는 대박집 운영 중입니다. 현재 각화점, 학동점 성업중!!

가맹점 문의 산수옥면가 H. 010-2018-2005, T. 080-358-5000

KBS1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
빠른 성사! 결혼성사시까지...

중매잘한다~ 성사잘한다~ 소문!

회장 : 서울대학교 법대졸업 (공공기관 다년재직) 광주서석초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동문 결혼정보 서비스업체
조선대학교 전남대학교

초혼	추천회원	재혼
<p>의사, 변호사, 의사, 한의사 27~45세</p> <p>판사, 검사, 변호사, 회계사 28~47세</p> <p>공무원(5급~9급) 27~42세</p> <p>사법, 행정고시 합격자 VIP</p> <p>상성, 현대, LG 직원 28~47세</p> <p>은행원, 연구원 29~49세</p> <p>대(중)소기업 직원 27~48세</p> <p>사업가, 자영업 29~39세</p> <p>세무사, 연구원 29~48세</p> <p>국영기업체 직원 29~39세</p> <p>교사, 교수 28~49세</p>	<p>전문직 희망 여성 25~38세</p> <p>오케스트라단원, 회사원 26~41세</p> <p>간호사, 유치원 교사 27~42세</p> <p>의사, 약사, 교사 25~39세</p> <p>변호사, 회계사, 변호사 26~39세</p> <p>공무원(5급~9급) 27~42세</p> <p>정부투자기관 직원 25~38세</p> <p>간호사, 은행원 26~47세</p> <p>학원(음악)원장, 교사 27~42세</p> <p>스튜어디스, 영양사 26~42세</p> <p>미스코리아, 미스전북 27~36세</p>	<p>의사, 변호사 32~65세</p> <p>국영기업체 기관장 52~66세</p> <p>공무원, 교사, 교수 35~65세</p> <p>대기업 간부 36~59세</p> <p>회사원, 자영업 '무출신 여성' 희망 33~67세</p> <p>31~58세</p> <p>VIP 희망 여성 29~53세</p> <p>학원(음악)원장, 교사 27~63세</p> <p>공무원, 교사 32~58세</p> <p>간호사, 회사원 29~48세</p> <p>자영업, 교사 35~64세</p> <p>'무자녀 남성' 희망 28~48세</p>

임페리얼 클럽
강남역 7번출구 70m 하나은행 B1D 6층
02) 521-4405
호남지사 (663) 275-7766